

‘언론, 언론인 60년’ 특별 사진전



한국언론재단·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젠테이션아외광장에서 ‘언론, 언론인 60년’ 특별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이 사진전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광주 베트남 참전 전우회 지부장 취임식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광주지부회는 15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 2층 연회장에서 신임 김수련 지부장 취임식과 지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

‘광주교통 경제인의 밤’ 행사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는 최근 센트럴관광호텔에서 ‘광주 교통경제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GM대우 동광주점 비상소 김용호 대표 등 12명에게 광주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광주대-한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 협정



광주대(총장 김혁중·왼쪽)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오른쪽)와 15일 광주대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부임 3돌 맞은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이진홍 지점장

“전직원 봉사단 구성 ‘나눔 경영’ 실천”

경마는 말의 능력을 겨루고 기수가 기마술을 과시하는 레저스포츠다. 그래서 그 역사도 깊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전차경마의 기록이 있고,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도 기마경기 기록이 있을 정도다.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서도 한몫 하고 있다. 최근 부임 3년째를 맞은 한국마사회(KRA) 광주지점 이진홍 지점장으로부터 경마에 대한 이해와 진실, 마사회가 하는 일 등을 들어왔다. -경마에 대한 오해가 많다. 경마가 뭐가. ▲미국, 영국, 호주 등 경마 선진국에서는 경마가 가장 인기 있는 레저스포츠다. 실제 경마는 말의 능력을 겨루고 기수가 기마술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스포츠이자 레저다. 결코 허황된 대박의 꿈을 쫓는 사행산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마가 마사회를 상대로 돈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이 말과 기수의 능력을 보고 돈을 거는 고차원적인 추리 게임이다. 이를 페리 뮤추얼(parimutual) 제도라고 한다. 마사회는 말과 고객 상호간을 중개하는 ‘운영 시스템’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수익금은 어디에 쓰여지나. ▲경마 총 매출액 중 72%는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다. 20%는 세금(레저세 등 발매원천세 18%, 법인세 약 2%)이다. 나머지 5%는 마사회 운영비로 쓰이고, 3% 정도는 축산발전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나눔 경영 실천을 많이 하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지점 160명의 직원이 ‘KRA Plaza 엔젤스’라는 봉사단을 구성, 활발하게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에도 노인복지센터에 도시락 배달, 사랑의 문화 공연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위문품 전달 등도 펼치고 있다. -광주지점 문화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 ▲경마가 없는 매주 화·수·목요일에 지역민을 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객장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센터 이용은 전혀 무료다. 그동안 224회, 참여인원만도 1만1천401명이 이용했다. 광주지점은 광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일조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채희중 기자, 나명주 기자, 윤영기 기자, 김대성 기자, 최경호 기자, 안현주 기자, 이은미 기자

광주일보 ‘고마워요...’ 올해의 기자상 대상

광주·전남기자협회 ... 23일 시상식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상을 보도한 광주일보 채희중·나명주·윤영기·김대성·최경호·안현주·이은미 기자 등 7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내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연중 기획시리즈 ‘고마워요, 당신의 팍팍음’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을 집중 조영,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공존의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7개국 현지 취재를 통해 외

국인 노동자들의 송출 과정의 문제점 등을 11차례에 걸쳐 다뤘다. 광주일보 편집부 김대성 기사는 대상에 이어 ‘산사의 뜰에서 “이뵈고”로 편집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뽑혔다. 한편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신문통신, 방송의 취재·기획·사건·편집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특별상 등 17개 기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7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에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풍 붕괴 사고 등 13년간 4천여명 구조

‘영웅 소방관’ 광산소방서 박용희 소방장

“119 구조대원은 모두 영웅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구조대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최고의 소방관을 뜻하는 ‘영웅소방관’에 선정된 광주 광산소방서 구조대 박용희(43) 소방장은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한 팀원들과 가족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15일 전국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소방행진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소방관 8명을 ‘영웅소방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 지난 1990년 소방관에 임용된 박 소방장은 근무 기간의 대부분인 13년 동안을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면서 ‘구

조만’으로 활약했다. 그동안의 인명구조 5천170여회, 화재 진압 1천380여회를 출동해 4천 430여명을 구조했다. 박 소방장은 1992년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펼쳤으며, 작년 이맘때에는 광산구 우산동 원룸화재 현장에서 방안에 갇혀 있던 여성 두 명을 적극적으로 구조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 크고 작은 상을 8차례 수상해 자타가 인정하는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불린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중증장애인 일할 수 있는 토대 만들터”

장애인고용공단 김선규 이사장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5일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선규(52·사진)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여성·중증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 확대, 장애인직업재활네트워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김 이사장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아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광산업, 플랜터와 같은 지역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장애



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장애인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 공단의 고객만족도는 79%로 나타났다. 좀 더 분발해 올해 안에 81%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하고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대구대 특수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고용개발원장, 고용촉진이사 등을 거쳐 18년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승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교과부 연구 심의위원회



남계춘 전남대 산학협력단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 2년. 남 단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점 기술개발 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정성필기자 camus@

인사

◆광주은행 ▲이사대우(승진) ▲기업고객본부 경 기영업업전략부장 정찬주 ▲업무지원본부장 겸 인사부장 정기복 ◆전보 ▲개인영업전략부장 정성우 ▲여신심사부장 이창진 ▲PB복합사업부장 박종광 ▲영업부장 류철수 ▲참단지점장 강경태 ▲신안동지점장 김양수 ▲하남공단지점장 이정학 ▲광주1 지역본부장 김재문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 김봉중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채영기(전 봉황시은 대표)씨 차남 기환(조선대병원 신경외과)군 김 응철씨 장녀 은영(영여가사)양=20일(토) 낮 1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조중환·이성영씨 장남 기영(KIA 타이거즈 홍보팀)군 김남숙·최영순씨 차녀 은정양=21일(일) 낮 12시20분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사파이어홀. ▲송년모임 - 호남대학교 부동산 연구회 1부: 2008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 010-6240-4000 ▲상주지구 조선전병상 메팅동 1부: 12월 15일 오후 7시 ☎ 021335-7911

동창·동문회

▲송의고 16회(회장 강신범) 부부 동반 송년모임=16일(화) 오후 7시 오델리아웨딩홀. 062-385-7800. ▲재광 전주 영생고 동문(회장 박노호) 송년 모임=16일(화) 오후 6시30분 충장로 엔터시네마 7층 전가복. 062-233-2337. ▲재광 보성중 27회(회장 구제근) 송년회=16일(화) 오후 7시 절단지구 엘레강스. 062-971-2020. ▲광주 복성중 16회(회장 강해동) 송년 모임=16일(화) 오후 6시 송원회관. 062-223-0028. ▲목포중·고등학교 재광동창회 송년의 밤=19일(금) 오후 6시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2층 건넌선홀. 062-222-0030. ▲광주 복성중 14회(회장 이현규) 부부 동반 송년 모임=20일(토) 오후

중진회

▲충주집씨 재광 중진회(회장 김명식) 이사회의=16일(화) 오후 6시 광주공원 향교 건너편 예원식당. 062-652-3926.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 청년 이화회(회장 이상술) 월례회의=16일(화) 오후 7시 지원사무실. 062-225-5631. ▲재광 해남군 산이면 향우회(회장 이양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16일(화) 오후 6시30분 풍암지구영

향우회

빈관 4층. 062-384-6000. ▲재광 진도군 임회회 향우회(회장 광복일)는 18일(목) 오후 7시 농성동 한국전력 후문 돌샘식당. 011-9221-9914. ▲재광 원도 고마 향우회(회장 최은동) 송년회=20일(토) 오후 6시30분 광산구 마차초등학교 옆 문가네식당. 011-635-7620(총무 김기석) 모임 ▲광주 토요산악회(회장 박길만) 송년회=16일(화) 오후 7시 상무지구 센트럴관광호텔 4층. 010-3608-4267. ▲무등클럽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19일(금) 오후 6시 매곡동 샤론웨딩문화원. 010-8822-5425.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20일(토) 오후 2시 광주군예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고양의 봄·자유곡 1곡. 062-529-1125.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준비를 하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부음

▲구점임씨 별세 방영섭·양삼·원섭·영남·영숙·점숙씨 모친상 범회견·이재학씨 빙모상=발인 17일(수)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추공임씨 별세 김정선·종선·정숙씨 모친상 덕호씨 조모상 고희수씨 빙모상=발인 17일(수)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이진섭씨 별세 성기·성배·성호·성삼·숙자·옥희씨 부친상 김중

구·정만영씨 빙모상=발인 17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안중관씨 별세 조준호·연석·숙화·연숙·명숙·미영씨 모친상 박석원·명양호·박재현씨 빙모상=발인 16일(화)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박지양씨 별세 김동수·태영·영순·미란·미화·미정·미자씨 모친상 박재근·김만진·김판동·나안균씨 빙모상=발인 16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정정순씨 별세 안중진·철오·향남씨 모친상 김광목씨 빙모상=발인 16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14.

Advertisement for '대안한국 프리드' (Alternative Korea Freedom)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phone number 1688-3740.